

## 검정스파케티를 먹던 10월의 가을밤

늘 서글서글하며 시원스레 웃기 좋아하는 k군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언제가 편한 시간이나며 집에서 저녁을 꼭 대접하고 싶단다. 너무나 기분좋은 초대에 망설임없이 곧 시간을 잡고 며칠후에 그의 집예를 갔다. 19년전에 만났던그가11년전에 출감하여 얼마전 결혼을 해 아들, 딸 낳고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그의 집은 그의 성실한 삶을 대변해주듯이 3층 콘도를 아주 예쁘고 모던하게 꾸미고 잘살고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초대는 바로 이러한 초대이다. 절망과 아픔의 기간에 함께 해주었던 그들이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터널밖에 밝은 빛속에서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길과 몫을 그렇게 성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의 초대말이다. 그는 음식을 손수 준비 하면서도 간간히 말로 나를 접대하며 지난 이야기를 마치 먼옛날 이야기를 추억속에 그리듯 서로나누며, 나와 또 깊은 인연이 있는 다른아이들도 곧 올거란다. 그들 또한 출감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좋은 이웃들이다. 식사시간이 되자 그들이 도착했다. 모두들 반가웠다. 참 오랜시간, 약 20년간을 알아온 사이라 마치 가족같은 그런 마음들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고 마냥 즐거웠다. 심지어는 수감중의 생활까지도 웃으면서 즐겁게 할수있는 지금이 된것은 그들의 변화된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 때문인것이다. 물론 출감후의 삶이 쉽기만하고 모든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속에서도 소망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한 삶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것이다. 큰목소리로 연신 떠들며 음식을 준비하던 k군은 음식이 다되었다며 스파케티를 소복히 담아오는데 검정스파케티와 빨간 스파케티 두가지를 샐러드와 함께 내놓는것이였다.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나는 “아! 이거구나 프리즌(교도소)스파케티!”하며 얼른 검정 스파케티 그릇을 내앞으로 잡아당겨 먹기 시작했다. 잊지못할 오징어와 그 먹물로 만든 스파게티맛! 그맛을 나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니 전도사님, 이 스파케티 먹어 보셨어요”하며 웃음이 자지러진다. 면회갈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먹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곧잘해주곤 했는데 그중 한재소자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오징어 먹물로 ?”하며 내가 신기해 하니깐 그맛이 기가 막히다며 자신이 출감하면 해주겠다고. 그리고 출감한후 얼마안되어 자신의집에 초대해 그 스파케티를 만들어 주었던것이다. 그맛이 내 입맛에는 딱이었다. 우리는 맛있게 먹으며 때로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때로는 아직도 수감중인 그들이 아는 재소자의 억울하고 딱한 이야기를 분노섞인소리와 낮은 한숨으로 섞어가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11시를 훨씬넘기고도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K군이 느닷없는 고백을 했다.”사실 전도사님을 검사검사 모셨다”며 자신이 수감중에 있을때 부끄러운 일 (면회갔던 다른 그룹의 사람에게 거짓으로이야기해 돈을 얻어썼던일)을 했던것을 고백하며 그일 이 계속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했다. 그이야기를 듣자 다른 아이들은 깔깔거리며”보세요 애가 이렇게 사기꾼이라니까요”하며 놀리며 웃는다. 그런 놀림에 씨익웃으면서도 그는 사뭇진지하다. 결국 12시가 다되어 일어나기 싫은 마음으로 나만 먼저 집을 나오는데 그가 따라나오며 차안에다 던져주듯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봉투를 내민다. 20년간 그들에게 주어만 보았지 받아보기는 처음이라 너무나 당황해하는 나를 기어이 이기고 나의 시동을 제촉하는 그들을 뒤로하고는 집으로 핸들을 꺾었다. 운전하며 돌아오는 내내 나는 내삶 위에와 내 가슴속에 10월의 짙짙한 가을 하늘속을 비집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의 은총과 생명의 감격이 가득채워지는 느낌으로 행복해하는 나를 본다. 삶은 감격이고 감동인것을 다시한번 경험하게 하는 이밤이 한없이 아름답다.

이 상숙 전도사



(양로원에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한자리에)